

멕시코 프리메이슨에 대한 소고:

멕시코 독립에서 프리메이슨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

임상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Lim, Sang-Rae (2015), "A Study on the Mexican Freemasonry: Freemasonry and Mexican Independence"

ABSTRACT

Although Freemasonry is a subject that is seldom explored in Korea, in Mexico it is considered an institution tha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during the movement for Mexican Independence and subsequent formation of the new state. In particular, after achieving independent statehood, the conflicts between two Freemasons, the so called "los liberales" (York rite) and "los conservadores" (Scottish rite) lasted many more years, and led to serious consequences for Mexican policy. This study will reveal and clarify the role of Freemasonry in the independence process of Mexico. This paper investigates thoroughly the participation of Masons in the War of Independence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the first Federal Republic of Mexico, allowing a more concrete view of Mexico's Freemasonry and Mexican Independence.

Key Words: Freemasonry, Freemason, Mason, Mexican independence, political culture

들어가는 말

우리는 프리메이슨(freemason, fracmasón)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간직한 비밀결사로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세계 지배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음모집단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프랑스혁명이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연구의 시론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쇄심을 갖고 원고를 읽어준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Sang-Rae Lim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Email: srlim@bufs.ac.kr).

미국 건국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을 좌지우지한 운동 조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다양하지만 때로는 상반되는 모습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프리메이슨은 생소하고 예외적인 미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를 포함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프리메이슨은 그렇지 않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 프리메이슨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상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볼리바르나 이달고와 같은 많은 독립영웅들이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프리메이슨이 독립 투쟁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독립이후 멕시코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국가들에서 프리메이슨은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프리메이슨은 라틴아메리카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소재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는 질·양적으로 모두 미미하다. 이를 마르티네즈 모레노(2011)는 피상성(superficialidad), 선정성(sensacionalismo), 신화성(mitología)의 세 가지 성격으로 요약하여 지적하였다. 즉,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은밀하게 세계제국을 꿈꾼다는 식의 음모론과 같은 흥미위주의 연구가 많았으며, 상징이나 의식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신화화된 내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가 불완전한 면을 보이는 것은 프리메이슨의 본원적인 성격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리메이슨에 대한 일차 자료가 절대 부족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프리메이슨이 비공개와 비밀주의를 신조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가 처음부터 정해진 의도(반대 또는 지지)에서 수행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연구의 주장이나 논리가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Vázquez Semadeni 2010a). 즉, 연구자 개인의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프리메이슨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턱없이 평가 절하하는 문제들이 생겨나서 결국 프리메이슨을 연구자들이 기피하는 주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는 가톨릭의 대륙이었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프리메이슨을 반대하거나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이것이 관련 연구를 제약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고 이로 인해 프리메이슨에 대한 실제적 접근도 힘들었다.

국내의 관련 연구는 두말한 나위 없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라틴아메리카 프리메이슨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갖는 의미를 감안할 때 안타까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비록 ‘멕시코’와 ‘독립’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곤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프리메이슨을 다른 국내 최초의 학술 연구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멕시코 프리메이슨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멕시코 독립혁명 전후 프리메이슨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였는지 고찰하여 멕시코 프리메이슨의 주요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즉, 프리메이슨이 독립투쟁시기와 이후 독립국가 형성과정에 각각 어떠한 양태로 참여했는지를 비교하고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멕시코 프리메이슨이 멕시코 근대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프리메이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성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분석에 기초하여 수행될 것이다.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프리메이슨이 멕시코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연구주제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것이 없다. 다만 일부 저서와 역서가 서구의 프리메이슨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비교적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본적 성격을 다루는 장에서 그 내용을 참조할 것이다. 또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한 역사 중에서 프리메이슨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 이 역시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것이다. 멕시코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는 거의 국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최근 바스케스 세마데니(María Eugenia Vázquez Semadeni)와 같은 중진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결과들이 있어 이를 포함한 유관 문헌 자료들을 분석하여 멕시코 프리메이슨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프리메이슨의 기본 이해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어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의 어원이 ‘free(자유로운)+mason(석공, 石工)’이기 때문에 그 유래는 중세 이후의 석공 길드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원래 영국에서 석공은 오래전부터 교회나 국왕의 비호를 받았다. 중세의 석공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축가인 동시에 엔지니어였다. 따라서 석공은 도시를 건설하는 단순 노동자 이상의 중요한 존재였다. 게다가 중세에는 도시 건설의 성패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였기에 프리메이슨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인정받았다.² 석공들의 길드였던 프리메이슨은 1600년대 중반 또는 그 이전부터 일반인과 귀족들이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그 성격도 노동자의 비밀 단체에 철학적 성격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회와 도시 건축이 줄어들면서 프리메이슨은 침체되었고 특히 1600년대 말 영국에서는 프리메이슨 반대운동이 일어나 프리메이슨은 악마적인 반그리스도교 집단으로 비난받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717년 런던의 4개 로지는 총 로지(총 지부)로 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총 지부장을 선출하였고 이로서 프리메이슨은 총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갖게 되었다. 총 지부장은 처음에는 평민이 맡았지만 나중에는 귀족과 왕족이 전임하여 영국의 프리메이슨은 귀족의 보호를 받았다. 1723년에는 ‘프리메이슨 역사의 아버지’로 일컫는 제임스 앤더슨이 프리메이슨의 철학, 역사, 법률, 의무, 활동을 집대성하여 프리메이슨 규약을 발표하였다. 규약에는 시민의 권리나 노동 윤리와 같은 ‘진보적’ 개념들도 포함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 프리메이슨은 크게 성장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부를 확대하였다(Jeffers 2008, 52-59).

1 프리메이슨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오랜 된 것은 솔로몬 시대의 신전 건축사 집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입단식에서 새로운 가입자가 체험하는 ‘히람전설’(히람Hiram은 건축술에 정통하여 솔로몬의 신전건립을 지휘하였는데 그 명성을 질투한 휘하의 3명의 직인에게 습격당하여 살해되었다는 전설)이라는 통과 의례와 관계가 있다. 중세의 십자군 기사단, 특히 템플기사단을 기원으로 하는 설도 있으며, 드루이드교의 거석송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과 16-17세기의 헤르메스주의 결사체를 전신으로 생각하는 견해 등도 있다(Hankooksajconyoungusa 1998).

2 freemason에서 ‘free’는 큰 건축공사가 있을 때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특권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석공 길드로 시작된 프리메이슨은 중세가 붕괴되고 대교회 건축이 줄어들면서 침체되었고 이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계몽주의적 정신을 기초로 비밀결사 등의 개념이 더해져서 철학·사색적 성격을 갖는 근대적 프리메이슨이 나타났다.

프리메이슨은 그것이 갖는 특징적 성격들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프리메이슨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은 비밀결사(secret society, sociedad secreta)인데 이는 석공들이 고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비밀리에 운영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비밀성이란 운영이나 규율보다는 입단식 등의 절차와 과정의 비밀을 의미한다. 특히 입단식은 프리메이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의례였다. 입단 또는 입문(initiation, iniciación)은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 수련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프리메이슨의 통과의식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어떤 신성한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자연의 산물인 인간이 신성한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자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신비주의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통과 의식을 치루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급이 높아질 때 치루는 승급의식도 중요시되었다. 프리메이슨에서는 승급이 될 때마다 그 등급에 맞는 연장을 부여받고 등급에 따른 글자와 문양이 그려진 양탄자를 상징으로 게시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Jin 2009, 57).

이와 같은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는 그 종교적 색채 때문에 그리스도교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추방당한 에세네파, 그노시스파, 카타리파 등은 모두 신비주의 전통을 가진 분파였는데 이들은 모두 통과제의를 실행했다. 그것이 전해진 것이 바로 중세의 건축가 집단이었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지배한 중세 이후 서구 사회에서 신비주의는 점차 쇠퇴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회원간에만 은밀하게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717년 런던에서 철학·사색적인 성격을 가진 근대적 프리메이슨이 창설되고 이후 신비주의에만 기초한 전통적 프리메이슨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Jin 2009, 108).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고유성은 철저한 위계 등급(grade, grado)을 갖는다는 것이다. 프리메이슨의 위계는 1등급 도제(또는 수련공, apprentice), 2등급 숙련공(fellow craft), 3등급 장인(master, 또는 master mason)을 기본 등급으로 한다. 그러나 이후 프리메이슨 분파가 생기면서 위계 등급도 다양해졌다.

예로 스코틀랜드 의례파(scottish rite, rito escocés)는 4-32등급에 명예등급이 더해져 33등급까지, 요크 의례파(york rite, rito yorkino)는 10등급까지로 등급이 더해졌다. 따라서 프리메이슨 등급체제는 조직 내의 위계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며 또 분파를 구분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프리메이슨의 활동과 운영은 ‘로지’(lodge, logia)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로지는 원래 석공들이 연장을 보관하고 점심을 먹고 쉬는 오두막을 의미하는데 프리메이슨이 모이는 방이나 건물을 로지라 부른다. 로지의 구성은 3-7명 정도이며 일종의 지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로지는 총 로지(총 지부, grande lodge, gran logia)의 승인이 받아야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다. 프리메이슨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 각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지의 장은 마스터(master), 총 로지의 장은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라고 한다. 따라서 프리메이슨은 비밀결사, 위계 구조, 로지 단위 운영을 형식적 성격으로 가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경향의 프리메이슨(또는 프리메이슨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비밀결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프리메이슨 지부는 공개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스스로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과 유사하게 평화와 형제애를 추구한다”고 밝히기도 한다(Information about Freemasonry). 입문의식을 중시하고 신비주의 전통을 지키는 전통적인 프리메이슨 이외에도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형제애적인 프리메이슨도 있고, 단체의 기부금을 사용해 회원 간의 상호부조는 물론이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프리메이슨도 있다. 인간적 가치를 정의하고, 경제 진보와 조화로운 사회 법칙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는 인본주의적 프리메이슨도 있고 국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군소정당과 같은 참여적인 프리메이슨도 있고 교회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프리메이슨도 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은 인본주의적이고 형제애적인 프리메이슨이 다수이며 입문적인 경향의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은 많지 않다(Jacq 2003, 280-281). 따라서 오늘날 프리메이슨은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비밀결사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친목조직이나 사교클럽과 같은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 더 일반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멕시코 프리메이슨의 기원과 형성

1700년대 초반 유럽과 스페인에서 프리메이슨은 사회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 국가와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는 대상이었다. 특히 가톨릭은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하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교재판에서 처벌하였다. 가톨릭은 프리메이슨과 계몽사상 모두를 정치·도덕적 재앙을 불러오는 악으로 규정하고 개신교와 결부시켜 공격하였다. 이는 식민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다(Vázquez Semadeni 2011, 171-173).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식민지에서 프리메이슨은 일부에게만 알려진 반가톨릭 집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에서 ‘활약한’³ 이후 프리메이슨은 가톨릭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군주에게도 특별한 경계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부추길 수 있는 위협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프리메이슨은 교회는 물론이고 스페인 국가로부터도 이중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특히 누에바 에스파냐를 포함하는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 인들은 우선 감시 대상이었다. 이들이 프랑스 혁명 사상을 식민지에 전파시킬 것을 우려해서였다.

특히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과 스페인 왕의 퇴위는 스페인과 아메리카 식민지, 이른바 ‘스페인 세계’에 정통성의 공백을 불러왔고 당시 나폴레옹은 프리메이슨을 자신의 권력과 혁명 사상을 확산시키는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프리메이슨을 군주제와 종교재판에 맞서는 대항마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나폴레옹의 계획은 먹혀들지 않았다. 프랑스의 침공에 저항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투쟁이 예상외로 강건하였고 나폴레옹과 프리메이슨에 대한 반감도 오히려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서양을 건너 누에바 에스파냐에도 전해졌다(Vázquez Semadeni 2011, 180-181).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프리메이슨의 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3 당시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모든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1789-1794)을 지지했다고 할 수 없다. 신비주의적 전통을 중시하는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프리메이슨은 혁명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많은 프리메이슨이 프랑스의 정치를 지적으로 비판했고 그래서 대혁명에 몰두하였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나폴레옹의 친위대로 전락하기도 했다(Jin 2009, 123-125).

4 독립이전 멕시코와 중미를 관할하였던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부왕령을 의미함.

것은 프랑스인과 스페인인에서부터 멕시코 프리메이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후반부터 멕시코로 이민 온 프랑스 사람들과 스페인 군대에 입대하여 멕시코에 온 프랑스 출신 군인들 중 프리메이슨이 나타났고 이들 프랑스인만이 회합하였던 로지는 1791년 조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Ayllón Trujillo 2011, 81).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프리메이슨과 프랑스 혁명 간의 전례 때문에 이들은 누에바 에스파냐 당국의 특별 감시 대상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멕시코 프리메이슨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영향은 더 직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멕시코에 프리메이슨을 알리는 전파자였다면 스페인인들은 멕시코에 프리메이슨을 조직한 사람들이었다. 식민지 체제를 지키기 위해 누에바 에스파냐에 파견된 스페인 군인과 장교 중에 프리메이슨이 있었는데 이들이 멕시코 초기 프리메이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프리메이슨의 결성에 노력했다. 본국에서처럼 식민지에서도 이들은 정부와 교회의 공격을 의식해서 주로 비밀결사로 활동하였다. 당연히 18세기 말-19세기 초 누에바 에스파냐 프리메이슨은 세력이 크지 않았고 페닌슐라레스(스페인 태생 백인)와 소수의 크리오요(식민지 태생 백인)만으로 조직되어 있었다(Bermúdez González 2007).

멕시코 최초의 로지는 1806년 멕시코시티에서 조직된 것으로 되어있다. 엔리케 뮈니스(Enrique Muñoz)에 의하면, 지금의 볼리바르(Bolívar)가인 라스라타스(Las Ratas)가 5번지의 주택에서 멕시코 최초의 로지가 결성되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로지에 멕시코 독립의 선구자인 이달고 신부와 이그나시오 아옌데 등이 가입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 하는 것이다(Enciclopedia de México, Vol. 9, 5059; Cortés Koloffon 2010). 이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달고 신부가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프리메이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남미 독립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⁵

5 당시 프리메이슨 로지는 독립운동의 수단 또는 거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라틴아메리카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가 1790년대 유럽에서 체류했을 당시 거기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프리메이슨을 설립한 것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 중남미 독립 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프리메이슨은 1811년 카디스에서 조직되어 이듬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옮긴 후 다시 멘도사와 산티아고로 이전한 '라우타로 로

이처럼 누에바 에스파냐 프리메이슨은 프랑스인, 스페인인 그리고 식민지 출신 스페인인 등의 백인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이 개시되면서 일부 독립운동 세력은 프리메이슨을 독립투쟁의 근거지 또는 연락처로 삼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독립과 프리메이슨

멕시코 독립과 프리메이슨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슨과 비밀결사는 혁명이나 독립과 같은 정치적 투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역사적 전례들을 선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 프리메이슨, 즉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프리메이슨은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이다. 여기서 비정치적이란 정치나 종교에 대해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개념이 확장되고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현실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프리메이슨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밀결사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예는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⁶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멕시코의 초기 프리메이슨도 ‘정치적’이었다. 왜냐면 1800년대 초 멕시코에 온 스페인 출신 군인과 정치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프리메이슨은 스코틀랜드 의례파가 다수였고 이들은 입헌군주제와 교회개혁을 지지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Ayllón Trujillo 2011, 79). 따라서 초기 프리메이슨은 정치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메이슨을 결성했고 나중에는 식민지가 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프리메이슨을 조직했다.

지’(Logia Lautaro)였다. 이 로지에는 시몬 볼리바르, 안드레스 베요, 산 마르틴 등 독립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라우타로 로지는 ‘합리적인 신사들의 결사’(Sociedad de los Caballeros Racionales)라고도 불렸다(Chasteen 2011, 170-171;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Vol. 3, [Mason Orders]).

6 프리메이슨의 활동은 러시아 혁명에서도 두드러졌다. 러시아 혁명에서 프리메이슨은 혁명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위원회를 ‘점령’하였다. 주요 직책들을 차지하고 난 후 프리메이슨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은밀하게 모여 혁명사를 논의하고 프리메이슨 내에서 요직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나갔다. 이렇게 하여 혁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Jo 2007).

이후 1810년 경 베라크루스와 유카탄에 최소 3개 이상의 로지가 생겨났다. 이들은 루이지애나 총 로지에 가입된 요크 의례파로 추정되며 독립운동과 관련된 회원들의 활동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당시 해당 지역의 자유주의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로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유카탄의 메리다 프리메이슨은 카디스 헌법⁷의 적용을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점(Vázquez Semadeni 2010b, 24)을 미루어 볼 때 독립과 어느 정도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812년 베라크루스의 할라파에서 조직된 ‘합리적인 신사들의 결사’(Sociedad de los Caballeros Racionales, 이하 SCR)는 독립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다. 1811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페인 장교였던 카를로스 알베아르(Carlos Alvear)는 카디스에서 SCR에 참여했는데 이 결사는 주로 아메리카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서로간의 형제애를 강조하며, 식민지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로지’라 불렀다. 알베아르는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한다면 식민지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아메리카에 SCR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에도 SCR 로지가 조직되었다. 통과의례가 있었고, 조국을 위한 맹세를 하였으며,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가톨릭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로지의 리더였던 라몬 카르테나(Ramón Cardena)는 나중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⁸ SCR의 목적은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기에 이후 일부 회원들은 모렐로스의 독립운동 지도부에 참여하였다. 프리메이슨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프리메이슨과는 연관이 없었고 정치적 애국주의 단체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SCR은 준 프리메이슨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Vázquez Semadeni 2010b, 25; Enciclopedia de México, Vol. 9, 5060).

다른 비밀결사들도 활동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달루페 사람들’(Los Guadalupes)⁹이었다. ‘과달루페 사람들’은 1811년 멕시코시티에서 변

7 카디스 의회가 1812년 제정한 스페인 최초의 헌법. 입헌군주제, 귀족과 교회의 특권 제한, 간접 보통선거 실시 등이 주 내용이지만 프랑스 점령 하에 있었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Chasteen 2011, 160-161).

8 자료의 부재로 SCR이 가톨릭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테나가 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종교재판이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상기해볼 때 카르테나도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개인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9 ‘과달루페 사람들’이란 말은 ‘과달루페 성모’(Virgen de Guadalupe)에서 나왔다. 식민시대

호사, 사제, 지주, 상인, 일부 귀족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고 목적은 독립운동을 꾀하는 것이었다. 가입자의 다수는 크리오요였고 조직은 비밀로 운영되었고 독립사상을 전파하고 독립군에 군사 정보와 병력을 제공하였다. 1814년 페르난도 7세의 복위로 스페인에 절대왕정이 복원되어 독립운동에 대한 진압이 강화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프리메이슨 의식은 없었고 조직 내 위계구조도 없었다. 따라서 일종의 비밀정치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Vázquez Semadeni 2010b, 26).

이처럼 독립전쟁 시기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프리메이슨이 있었고 이달고 등 일부 독립혁명가는 프리메이슨에 우호적이었지만 프리메이슨이 독립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독립군에 우호적 활동을 전개한 조직들은 대개 준 프리메이슨 단체이거나 정치적 비밀 결사조직들이었다. 따라서 멕시코 독립에서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과 유사한 결사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멕시코 독립 과정에서 활약하였던 조직은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에 준하는 단체까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프리메이슨’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독립 전후 멕시코 프리메이슨을 유형화한 바스케스 세마데니(Vázquez Semadeni)의 연구는 중요하게 참조할 만하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초 스페인과 멕시코에는 비밀결사, 프리메이슨, 준 프리메이슨, 애국결사 등 4개 유형의 사회적 단체가 존재하였다. 비밀결사(sociedades secretas)는 선발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입할 때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를 나타내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회원끼리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나 제스처를 가지며 조직의 비밀을 준수하였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비밀결사가 큰 역할을 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¹⁰ 프리메이슨 단(sociedades masónicas)은 형제애와 상호부조를 주장하고, 입문 또는 통과의례를 치루며, 의무를 맹세하고, 프리메이슨 내에서만 공유하는 비밀지식이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유래된 ‘레메디오 성모’(Virgen de los Remedios)를 중시했고 반면 멕시코 사람들은 과달루페 성모를 섬겼다. 이후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 독립의 상징이 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멕시코 가톨릭의 중심적 정체성이 되었다.

10 일제의 탄압에 맞서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은 비밀결사 형태로 전개되었다. 광복회와 같은 비밀결사체는 독립 사상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군대식 조직을 기반으로 전국 각 처와 만주에 지부를 세웠다.

존재하며, 등급의 위계구조를 가지며, 로지에서 모임을 가지고 총로지와 같은 상위 기구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조직 내에서 종교와 정치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금기시되었고 인도적이고 철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준 프리메이슨단(*sociedades paramasónicas*)은 프리메이슨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준 프리메이슨은 비밀주의나 우호나 박애 사상과 같은 철학(사색성)을 갖지 않았다. 또 프리메이슨의 중요 성격인 로지나 총 로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애국결사(*sociedades patrióticas*)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정치적 참여와 동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대중 집회를 하며 정치적 토론, 대중 강연, 기념식이나 시민 축제 조직 등에 몰두하였다(Vázquez Semadeni 2010b, 21-22). ‘*patria*’는 조국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태어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하였기에 향토적 성격을 갖는 지역차원의 결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 프리메이슨의 독립혁명 참여 논란은 반혁명세력의 전략과도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이전 멕시코에서 프리메이슨은 “왕좌(*trono*, 즉 본국 왕실)와 제단(*altar*, 즉 가톨릭)에 대항하는 이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 공식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서 그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세력은 크지 않았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독립에서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프리메이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저지하려는(프리메이슨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목적으로 스페인 본국과 반혁명 세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전략과 언술(*discourse*)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Vázquez Semadeni 2011, 199). 즉, 어떻게든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려는 본국과 식민지 당국이 독립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프리메이슨의 독립혁명 참여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여 독립 세력에 대한 공세의 빌미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멕시코 독립 과정에서 혁명 지도자들은 프리메이슨에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리메이슨이 독립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대개 준 프리메이슨 단체이거나 정치 결사조직이었다. 따라서 프리메이슨 단독으로보다는 프리메이슨과 준프리메이슨까지를 포함하는 독립운동 결사체가 멕시코 독립에서 역동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립국가 형성과 프리메이슨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독립혁명에서 운동체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정치적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에 있던 스페인 출신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로지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는데 특히 식민지의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로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여기서 누에바 에스파냐가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1817년 ‘친구들의 모임 No. 8’(Amigos Reuniones No. 8)과 ‘미덕의 모임 No. 9’(Reunión de la Virtud No. 9)과 같은 철학적 성격이 더해진 근대적 성격의 로지가 멕시코시티와 유카탄에 조직되었다. 1821년 마지막 부왕 후안 오도노후(Juan O’Donojú)가 부임했을 때 그의 주치의 마누엘 코도르니우(Manuel Codorníu)는 ‘엘 솔’(El sol) 로지를 조직하고 같은 이름의 신문을 발간했는데 목적은 이팔라 계획¹¹을 지지하고, 가톨릭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Habacúc López 2011, 11; Enciclopedia de México, Vol. 9, 5060). 명백하게 멕시코의 독립을 지지하는 로지도 증가하였다. 1823년 과달루페 빅토리아는 할라파에서 쿠바 출신 시몬 데 차베스(Simón de Chávez)와 함께 ‘검은 독수리 군단’(Gran Legión del Aguila Negra)을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스페인인들을 추방하는데 동의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1825년 비센테 게레로(Vicente Guerrero)도 ‘멕시코의 장미’(Rosa Mexicana) 로지를 세웠다(Habacúc López 2011, 12; Wikipedia, Francmasonería en México).

독립 직후 멕시코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모든 것이 새로운 상황이었기에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 때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국가 정치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actor)로 부상하였다.

1822년 5월 이투르비데가 스스로를 아구스틴 1세로 선언하고 즉위하였다. 곧 이어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제헌 의회를 해산하였다. 이에 12월 2일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Antonio López de Santa Anna, 이하 산타 안나)는 베라크루스에서 이투르비데 왕정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투르비데는 반란을

11 이투르비데는 1821년 2월 군주제로의 독립, 가톨릭의 인정, 모든 사회계급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이팔라 계획을 발표하여 멕시코 독립의 주도권을 잡았다.

진압하기 위해 안토니오 에차바리(Antonio Echavarr) 장군을 파견했으나 그는 오히려 산타 안나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1823년 2월 1일 카사 마타 계획(Plan de Casa Mata)¹²을 발표하였다. 이투르비데가 중앙집권주의로 기울고 지방에 강제로 재정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지방 세력들도 산타 안나를 지지하였다. 결국 1823년 3월 아구스틴 1세는 왕좌에서 물러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다시 소집된 의회는 11월에 공화정을 선포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렇게 제정된 1824년 헌법은 가톨릭을 국교로 하였다(Colegio de México 2004, 125; Co 2011, 180-181).

이투르비데 시대의 의회에는 다수의 프리메이슨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투르비데와 군주제를 반대하여 카사 마타 계획의 주동 세력이 되었다. 미겔 라모스 아리스페(Miguel Ramos Arizpe)와 세르반도 테레사 데 미에르(Servando Teresa de Mier) 등이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들은 멕시코 독립의 영웅들이었고 자유주의를 선호하였고 북부출신이었다. 로렌소 데 사발라(Lorenzo de Zavala)도 자유주의자로 1825년 요크 의레파 프리메이슨의 창설 멤버였다. 반면 기업가이자 정치가였던 루카스 알라만(Lucas Alamán)은 보수파의 리더였다(Bermúdez González 2007). 이처럼 이투르비데의 축출은 일면 프리메이슨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였다. 이투르비데의 패배로 군주제 대 공화제의 대결은 일단 공화주의의 승리로 끝났으나 또 다시 중앙주의와 연방주의가 대립하여 멕시코 정치는 계속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투르비데의 군주제가 무너지고 후 멕시코 초대 대통령으로 과달루페 빅토리아가 당선되었고 니콜라스 브라보는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과달루페 대통령 재임 4년(1824-1828)은 스코틀랜드 의레파(이하 스코틀랜드파)와 요크 의레파(이하 요크파) 프리메이슨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당시 정치인의 다수가 프리메이슨에 속해있었기에 프리메이슨은 일종의 정치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Pani 2012). 따라서 당시 아직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리하여 두 프리메이슨 분파간의 대립은 더욱 두드러졌다.

스코틀랜드파 프리메이슨은 스페인에서 백인 상류층 사이에 퍼졌다. 따라서 이투르비데 세력과 부르봉 왕가를 지지했던 다수의 크리오요들은 스코틀랜드파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주의적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반면 요크파 프리메

12 카사 마타 계획은 새로운 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슨은 미국 대사 포인셋(Poinsett)의 지지를 받아 메스티조와 중산층을 규합하여 연방주의적 정당의 기초를 만들고자 했다. 빅토리아 대통령은 연방제와 반스페인주의를 주장하는 요크파 프리메이슨을 지지했는데, 미겔 라모스 아리스페, 로렌소 데 사발라 외에도 호세 마리아 알푸체(José María Alpuche), 비센테 게레로(Vicente Guerrero) 등의 자유파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Colegio de Mexico 2004, 127; 2011, 185).

멕시코에서 요크파 프리메이슨의 성립은 미국 대사 포인셋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큰데 이는 당시 양국 관계를 고려해볼 때 미국 외교 전략의 산물이기도 했다. 포인셋이 대사로 부임해 왔을 때 멕시코의 외교는 유럽 계몽주의에 정통한 보수주의자 루카스 알라만이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알라만은 미국보다는 영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더 집중하였다. 특히 그는 멕시코 북부의 국경지역을 노리고 있던 미국을 크게 경계하였다. 따라서 알라만은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고 영국과 먼저 우호·통상·항행 조약을 체결하였다. 알라만의 외교에 놀란 포인셋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가 찾아낸 방도는 알라만이 버티고 있는 행정부보다는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가 많이 포진해있는 의회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었다(Zoraida Vázquez 2006, 36-37). 포인셋의 전략은 주효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을 얻어내 보수파를 견제하면서 포인셋은 멕시코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훗날 보수파가 포인셋의 추방을 몬타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요구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었다.¹³

포인셋의 개입으로 뉴욕 총 로지의 인정을 받는 요크파 로지들이 본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급진주의자, 연방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스코틀랜드파에 맞섰다. 반면 보수적인 프리메이슨들은 요크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오래되고 인정된 스코틀랜드 의례파’(Rito Escocés Antiguo y Aceptado) 로지로 결집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마누엘 코도르니우는 이중 중요 인물이었다. 이렇게 하여 요크파에는 미국식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프리메이슨이 모였고 반대편에는 스페인 자유주의를 계승하는 보수적 정치인들이 스코틀랜드파 로지로 결집되었다(Wikipedia, Francmasonería en México; Enciclopedia de México, Vol. 9, 5060).

두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 3의 대안을 찾았는데, 1825년

13 각주 15의 몬타노 계획의 상세한 설명 참조.

민족주의적 로지인 멕시코 의례파(Rito Nacional Mexicano, 이하 RNM) 프리메이슨을 세웠다. RNM은 자유주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외세가 아닌 멕시코 고유의 정치 시스템을 추구하였다. 멕시코 의례파는 1826년 요크파나 스코틀랜드파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아나우악의 자오선’(Meridiano Anahuacense), ‘평등’(Igualdad), ‘폭군의 공포’(Terror de los Tiranos), ‘인디오의 무심’(Despreocupación Indiana), ‘멕시코의 빛’(Luz Mexicana)과 같은 로지들의 결성을 승인하였다(Habacúc López 2011, 12). RNM은 나중에 요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9등급의 위계 체제를 확립하였다.

당시 과달루페 정부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부도 직전의 국가 재정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회의 특권과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요크파는 이를 지지하였고 스코틀랜드파는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인들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이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호아킨 아레나스(Joaquín Arenas) 신부 사건은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아레나스 신부는 멕시코의 혼란은 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827년 1월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의 왕정 복귀를 주장하며 이에 동조하는 사제들과 반란을 계획했다.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신부가 처형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스페인의 재정복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멕시코 사람들의 반스페인 정서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같은 해 5월에 스페인인의 공직과 사제직 취임 금지령이 내려졌고 12월에는 스페인인 추방령이 내려졌다.

브라보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파는 즉각 이에 반발하였다. 이들은 1827년 12월 몬타노 계획(Plan de Montaña)¹⁴을 발표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요크파 프리메이슨을 포함하는 비밀 결사를 금지하고, 요크파 정치인을 축출하기 위해 내각을 재구성하고, 요크파의 최대 후원자인 포인셋 대사를 추방하고, 가톨릭을 국교로 정한 1824년 연방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베라크루스 주와 산 루이스 포토시 주 등 일부 지역이 몬타노 계획에 가담하여 양측의 충돌은 격화되었으나 결국 과달루페 빅토리아 대통령의 정부군이 승리하였다(Habacúc López 2011, 12). 이로 인해 요크파 프리메이슨은 다시 세력을 확인하였고 스코틀랜드파의 위세는 축소되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요크파와 RNM은 게레로를, 스코틀랜드파는 마누엘

14 멕시코주의 오투мба(Otumba)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투мба 계획(Plan de Otumba)이라고도 한다.

고메스 페드라사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였다. 선거에서 마누엘 고메스가 승리했으나 요크파와 게레로가 불복하여 결국 마누엘 고메스는 사임하고 게레로가 대통령이 되었다. 다시 요크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게레로가 넘겨받은 멕시코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하였다. 국가 재정은 계속 부족하였고, 농업, 광업, 제조업의 생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도로 등의 사회기반도 엉망이었고 교회와의 마찰도 계속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재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1829년 멕시코를 재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 탐피코를 점령하였다. 게레로 대통령은 아나스타시오 부스타만테(Anastasio Bustamante) 부통령을 탐피코로 파견했으나 오히려 부스타만테는 반란을 일으켜 1830년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게레로가 다시 봉기했으나 부스타만테의 계략에 빠져 1831년 암살당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산타 안나 장군이 봉기하여 결국 부스타만테를 몰아냈다. 이후 고메스 페드라사가 다시 대통령에 되었고 그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요크파의 지지를 받은 산타 안나 후보는 RNM 총회에서 자신의 정치 개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론과 언론의 자유 보장, 군대와 교회의 특권 폐지, 수도원의 철폐 등을 정치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여 1833년 멕시코의 대통령이 되었다(Ayllón Trujillo 2011, 83; Colegio de México 2004, 127). 산타 안나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개혁시대(La Reforma) 이전까지 멕시코 정치는 산타 안나 일인에 좌우되는 ‘의인주의적’(personalismo)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유와 보수 모두 멕시코의 평화와 발전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양 진영은 서로 다른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 자유파는 연방공화국을 희망하였고 반대로 보수파는 처음에는 군주제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앙집권주의적 모델을 지지하였다. 자유주의는 처음에는 요크파로 나중에는 RNM으로 모였고 반면 보수주의는 스코틀랜드파로 결집되었다(Secretaria de Educación Pública 1994, 33). 이렇게 하여 멕시코 정치와 정치세력은 양분되었고 이것은 19세기 멕시코 정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독립 이후 멕시코 정치 지형도의 형성은 식민시대 말기부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외래된 프리메이슨적(프리메이슨에 준프리메이슨까지를 포함하는) 전통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멕시코 독립에서 프리메이슨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포함하는 라틴아메리카 근대사에서 프리메이슨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결사체로서의 프리메이슨이 독립운동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전쟁에 이은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가와 교회간의 대립관계에서 프리메이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도 이런 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전반적으로 독립에 우호적이었다.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은 아니었지만 준 프리메이슨 등 다른 독립 결사체들과 함께 독립혁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독립 이후 국가-교회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교권과 반교권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군주제-공화제와 중앙주의-연방주의의 노선 대립에도 중목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즉 독립시대의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대결 구도가 가장 첨예하고 복잡한 정치적 지형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멕시코 독립과 프리메이슨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기존의 일반화된 해석들을 유의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는 “프리메이슨이 멕시코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달고 신부가 프리메이슨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산타 안나는 확실히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 또 살펴 본 바와 같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과달루페와 그를 이은 게레로 대통령 모두 프리메이슨 로지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독립에 관여한 중요한 인물들이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프리메이슨이 멕시코의 독립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석공들의 기능 집단에서 철학적 목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근대 프리메이슨이 나온 것은 당시의 계몽사상의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남미의 독립 사상도 역시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중남미 독립 운동은 계몽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받아들여 노예제 폐지, 세속 교육, 권력 분립 등의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런 면에서

프리메이슨은 독립의 지지자였다. 그러나 프리메이슨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독립을 지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Vázquez Semadeni 2010a). 이들은 식민지의 독립이 가시화되자 자신들의 이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독립을 자발적으로 지지했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또 이러한 상황, 즉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입장과 마지못해 받아들인 입장간의 분기(分歧)는 훗날 교권(敎權)과 정체(政體)를 둘러싸고 프리메이슨이 양분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멕시코 독립에서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프리메이슨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과 유사한 독립운동단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전술하였다. 즉, 멕시코 독립 과정에서 활약하였던 조직은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에 준하는 단체까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프리메이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이 멕시코의 독립을 주도하였다”라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은 그것의 다양하고 중첩적인 성격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리메이슨이 오늘날 멕시코에서 갖는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와의 깊은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독자적으로 독립혁명을 전개하지 않았지만 독립 이후 로지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프리메이슨 로지는 자유파와 보수파의 정치인들이 모이는 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멕시코 독립의 완수는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 정치조직의 신생을 뜻하는 것이었다. 독립 직후 멕시코는 의회정치를 하거나 선거를 치르는 등의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과제들을 수행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탄생은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정당이 생기기 전이었기에 프리메이슨이 정당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훗날 멕시코 정당정치에 기초가 되었다(Bermúdez González 2007). 따라서 멕시코 프리메이슨은 정치문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프리메이슨과 멕시코 정치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멕시코 정당정치와 엘리트층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소고는 관련 후속 연구를 견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Ayllón Trujillo, Maria Teresa, Maria Rosa Nuño and Wanderleia E. Brinckmann (Coords.)(2011), *Familia, identidad y territorio, actores y agentes en la construcción de la ciudadanía democrática*, España: Universidad de Málaga, eumed.net.
- Bermúdez González, Genaro(2007), “La masonería en el inicio de la vida independiente de México,” *Bien Común*, No. 151, julio, Fundación Rafael Preciado Hernández, A.C.
- Chasteen, John Charles(2011), *Americanos: Latin America’s struggle for independence*, Goobyung Park et al.(trans.), Seoul: Gil.
- Colegio de México(2004), *Historia mínima de México*, Hyeosun Ko(trans.),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 _____(2011), *Nueva historia mínima de México*, Changmin Kim(trans.), Seoul: Greenbee.
- Compañía Editora de Enciclopedia de México(1987), Enciclopedia de México, Vol. 9, [Masonería].
- Cortés Koloffon, Adrian(2010), “Mitos y realidades de la masonería,” *La Jornada Semanal*, [2010.10.17].
- Habacúc López, Eduardo(2011), “Aproximación al impacto de la masonería en el proceso del proyecto de la nación mexicana,” *Revista de Investigación en Ciencias Sociales y Humanidades*, No. 13,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Hidalgo.
- Hankooksajeonyoungusa(1998), Jonggyohakdaesajeon, Naver Jisikbackgwa, [Freemason].
- Jacq, Christian(2003), *La Frand-maçonnerie(Freemason)*, Taewhan Ha(trans.), Seoul: Munhankdongne.
- Jeffers, Paul(2008), *Freemasons*, Sangwon Lee(trans.), Seoul: Whangsojari, pp. 52-59.
- Jin, Hyungjun(2009), *Secret History of Freemason(Freemason bimilui yocksa)*, Seoul: Sallim.
- Jo, Hoyeon(2007), *Russian Revolution and Freemasonry*, Seoul: Seoyangsa Younhap Haksul Nonmunjip.
- Martínez Moreno, Carlos Francisco(2011), “El establecimiento de las masonerías en México en el siglo XIX,” *Revista de Estudios Históricos de la Masonería Latinoamericana y Caribeña*, Vol. 4, No. mayo 2011-noviembre 2012, Universidad de Costa Rica.
- Pani, Erica(2012), “Reseña de La formación de una cultura política republicana. El debate público sobre la masonería. México, 1821-1830 de María Eugenia Vázquez Semadeni,” *Estudi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de México*, No. 43,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1994), *Historia de México*.
- Tenenbaum, Barbara(ed.)(1995),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Vol. 3, Charles Scribner’s Sons, [Mason Orders].

- Vázquez Semadeni, María Eugenia(2010a), “La interacción entre el debate público sobre la masonería y la cultura política, 1761-1830,” *Revista de Estudios Históricos de la Masonería Latinoamericana y Caribeña*, Vol. 2, No. 1, mayo-noviembre, Universidad de Costa Rica.
- (2010b), “La masonería en México, entre las sociedades secretas y patrióticas 1813-1830,” *Revista de Estudios Históricos de la Masonería Latinoamericana y Caribeña*, Vol. 2, No. diciembre 2010-abril 2011, Universidad de Costa Rica.
- (2011), “La imagen pública de la masonería en Nueva España, 1761-1821,” *Relaciones*, Vol. 37, El Colegio de Michoacán, pp. 171-199.
- Zoraida Vázquez, Josefina and Lorenzo Meyer(2006), *México frente a Estados Unidos Un ensayo histórico, 1776-2000*,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Information about Freemasonry, Korea Freemason, [consultada 2014. 08] <http://koreafreemason.com/2013/05/02/%ED%94%84%EB%A6%AC%EB%A9%94%EC%9D%B4%EC%8A%A8/>
- Wikipedia, Francmasonería en Hispanoamérica, [consultada 2014. 08] http://es.wikipedia.org/wiki/Francmasoner%C3%ADa_en_Hispanoam%C3%A9rica

Article Received: 2015. 01. 05
Revised: 2015. 02. 23
Accepted: 2015. 02. 24